

여성긴급전화1366, 신종 폭력 대응 수요 확대

- 디지털성범죄(42.3%↑) 및 스토킹(32.1%↑) 상담 전년대비 증가

- 비대면 상담으로 심리적 문턱 낮추고 피해 상황에 맞는 전문기관 연계로 안전망 역할 강화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 이하 진흥원)은 2025년 한 해 전국 여성긴급전화1366(이하 '1366')을 통해 이뤄진 폭력 피해 상담 및 통합지원 현황을 담은「2025년 여성긴급전화1366 연감」을 29일(수) 발간했다.
- 연감에 따르면, 2025년 1366의 총 상담건수는 303,527건으로 1일 평균 832건이었다.
 - 이는 전년(293,407건) 대비 3.45% 증가한 수치로, 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과 긴급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피해 유형별로는 가정폭력 상담이 155,027건(51.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스토킹 19,223건(6.3%), 성폭력 19,155건(6.3%), 교제폭력 13,962건(4.6%)순으로 나타났다.
 - * 가정폭력(51.1%), 스토킹(6.3%), 성폭력(6.3%), 교제폭력(4.6%), 디지털성범죄(2.4%), 성매매(1.0%)
 - 성별 상담건수 비율은 여성 88.9%, 남성 5.8%로 남성의 비율은 전년(6.3%)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 또한, 디지털성범죄와 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 피해 상담이 크게 증가했고, 비대면 사이버 상담도 도입 이후 이용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 디지털성범죄 상담이 7,262건으로 전년(5,103건) 대비 42.3% 증가했으며, 스토킹 상담도 19,223건으로 전년(14,553건) 보다 32.1% 증가해 고도화 되는 폭력에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이 나타났다.
 - 채팅 및 게시판 등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22,659건의 사이버 상담을 이용하며, 신분 노출을 꺼리거나 전화 통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 특히 젊은 층에게 심리적 문턱을 낮춘 안정적인 소통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보호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2024년 말 세종센터가 개소하며 전국 19개 센터(중앙 1, 지역 18)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 * 전화로 국번 없이 1366 또는 지역번호+1366 연결, 카카오톡 채널에서 'women1366' 검색, 또는 사이버상담 누리집(www.women1366.kr) 접속
 - 초기 상담 이후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전문상담기관, 보호시설, 수사기관, 의료·법률기관 등으로 즉시 연계하는 '지원 허브(Hub)'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피해촬영물 삭제, 온라인 모니터링, 법률·의료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도 긴급보호와 현장 상담을 확대하는 등 피해 유형별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또한 전국 1366센터에 설치된 긴급피난처를 통해 2025년 한 해 총 4,157명의 피해자와 동반자에게 긴급 보호를 제공하며 2차 피해 방지와 안전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 성평등가족부 김가로 안전인권정책관은 "여성긴급전화 1366은 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첫 지원 통로" 라며, "급변하는 폭력 양상에 맞춰 1366의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고, 피해자가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신보라 원장은 “디지털성범죄와 스토킹 등 새롭게 변화하는 폭력 양상에 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며, “여성긴급전화1366 전국 19개 센터가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폭력 피해자의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5년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실적 인포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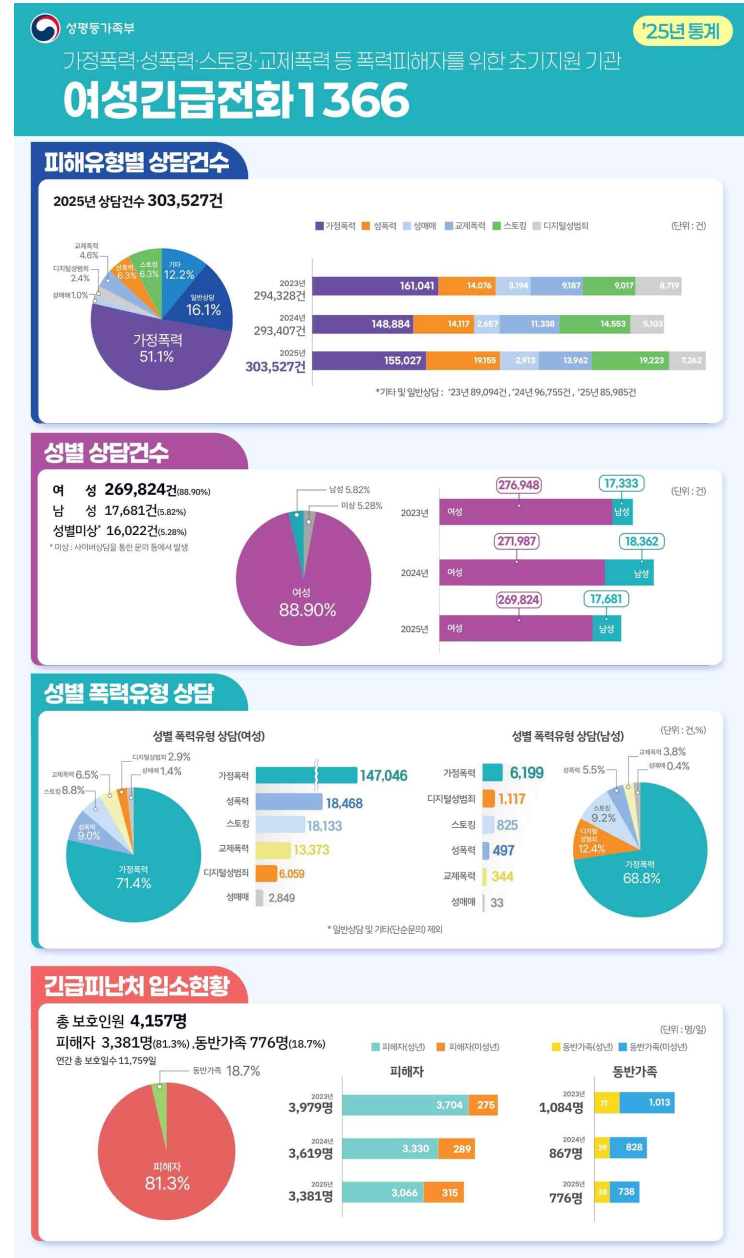
2.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현황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책임자	과 장	정희진 (02-2100-6421)
		담당자	사무관	이유경 (02-2100-6582)
담당 부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방지본부 통합지원팀	책임자	팀 장	강명숙 (02-6363-8460)
		담당자	팀 원	이지은 (02-6363-8463)



붙임 1

2025년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실적 인포그래픽



□ 운영개요

- (시설 규모) 전국 19개소(중앙센터 1개소, 전국 17개 시·도지역센터 18개소)

(단위 : 개소)

계	중앙 (1개소)	지역 센터(18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종
19	1	1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1

□ 사업 개요

- (법적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 운영 등)
- (목적)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로부터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 대해 초기 상담 및 긴급 보호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 보호
- (운영) 언제든지 전화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

□ 주요 기능

- 피해자에 대한 위기개입이나 초기상담 등 긴급지원
- 긴급한 구조를 위해 112, 119 등의 연계조치, 관련 상담·의료·법률구조 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 긴급피난처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자녀를 임시 보호(최대 7일*) 및 숙식제공 등 서비스 제공
- * 다른 보호시설로 연계가 어려운 경우 30일까지 연장하여 보호 가능
- 폭력피해자 상담 및 연계를 위한 현장지원

「2025 여성긴급전화1366 연감」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www.stop.or.kr)에 게시